전주 백제대로 녹색공간으로 재탄생

시, 2018년까지 50억 투입 명주골~꽃밭정이 네거리 구간 가로숲 · 녹지공간 · 휴게공간 등 조성

덕유산 향적봉 봄날에 핀 상고대

전주시가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대동맥인 백제대로를 시민과 관광객이 걷기 좋은 녹색공간으로 조성한다.

전주시는 오는 2018년까지 총 50억원을 투입해 우아동 명주골 네거리에서 평화동 꽃밭정이 네거리까지 총 15.2㎞ 구간의 백제대로의 인도를 활용해 명품 가로숲과 녹지공간, 휴게공간 등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예술자원을 만끽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녹색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도 사업 착수를 목표로 건축과 조경 도시재생 등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방향을 설정, 이를 토대로 예산확보와 사업대상지 조사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시는 삭막한 도시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해 백제대로를 크게 3개 구간으로 나눠 꽃과 나무를 식재하는 가로화단 등 녹지를 확충하고, 보다 쾌적하고 생태적인 도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백제대로 주변 병원과 관광서 등 각 기관의 전면화단을 활용한 인도변 녹지쉼터를 조성하고 상가밀집지역의 경우 상가연합회 등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내 활기찬 생활공간으로 만들어가기로 했다.

또 아파트 밀집지역은 아파트 담장을 이용해 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백제대로 주변 특성에 맞게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탈바꿈해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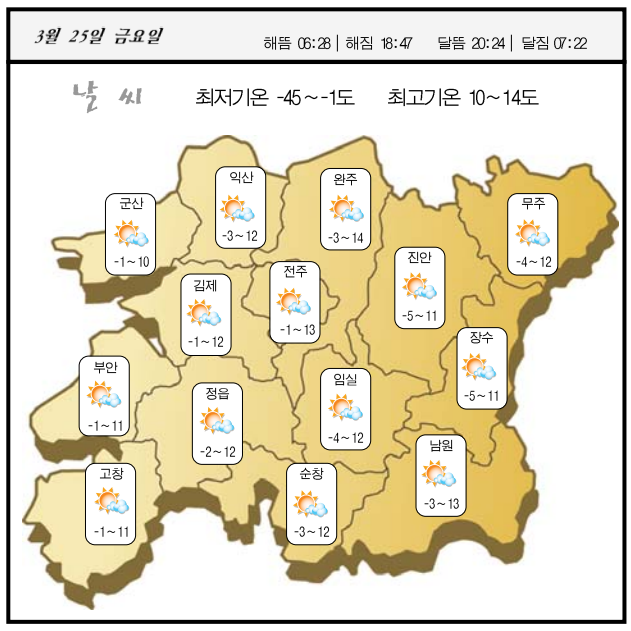
또한 시는 백제대로 녹색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해 전주역 광장에서 명주골 네거리까지 850m구간에 '첫 마중길' 사업을 추진한다. 첫인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첫 마중길 사업은 KTX 등 기차를 이용해 전주를 찾는 방문객들이 전주에 대한 쾌적한 첫 인상을 주기 위함이다.

사업 추진에 앞서 인근지역 주민과의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차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17년 말까지 총 60억원을 투입해 전주역 앞 8차선 중 일부 차선과 인도의 폭을 줄여 명품 가로숲을 조성하고, 도로 중앙 보행광장에는 관광객들과 시민들 등 보행자를 위한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드는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대학생은 물론 시민들이 참여해 보행자 중심의 테마형 녹지공간을 곳곳에 조성하는 등 명품거리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 첫 마중길 조성과 백제대로 열린녹지공간 조성으로 기존 차량 중심의 백제대로에 시민들을 위한 쉼터를 조성하는 등 전주의 문화와 생태를 엿볼 수 있는 보행자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본격적인 봄으로 접어드는 길목에 있지만, 덕유산국립공원 정상 향적봉(1,614m)에는 상고대가 피어 봄의 풍경과 어우러져 있다.



'교육혁신과 미래교육의 방향' 특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오늘 도교육청 전문직 연찬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전북도교육청에서 특강을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전북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유·초·중등 전문직 연찬회에서 '교육혁신과 미래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1시간 가량 강의를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교육혁신의 방향으로 ▲'No.1 교육'에서 'Only One 교육'으로, 즉 경쟁교육에서 협력교육으로의 전환, ▲학교를 '혁신과 자율의 공동체'로, ▲수직적 서열화 사회에서 수평적 다양화 사회로, ▲학교를 너머 더 큰 학교로(만-관-학 협치모델의 실현) 등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취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특히 교육혁신을 위한 전문직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강조할 계획이다.

그는 "교육혁신이 내용면에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학력, 미래핵심역량을 키우는 것이라면 이를 구현해나가는 방법에서는 참여와 소통을 통한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이 일을 촉진하는 것이 바로 교육청과 전문직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고민형 기자

전북사회복지모금회 '제1호 착한가정' 탄생

사랑의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제1호 착한가정'이 탄생했다고 24일 밝혔다.

1호 가정의 주인공은 군산에 사는 신대욱(43)씨 가정으로 가족 구성원 전체가 사랑의 열매 기부를 약정했다.

착한가정 캠페인은 부모가 자녀에게 나눔에 대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 전체가 1인당 5000원 이상 정기기부를 약정하는 캠페인이다.

사랑의열매는 지난 23일 신씨 가정에 '착한가정 인증' 현판을 증정했다.

신씨는 "평소 아이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알려줄 방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왔다"며 "이번 캠페인 참여로 아이들에게 '기부'라는 선물을 주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전북 안전교육 · 안전문화 진흥계획' 수립

도, 안전문화 추진기반 구축 등 4대 핵심전략, 10대 중점 과제 추진

전북도는 24일 '안전문화운동 추진 전라북도 협의회(이하 안문협)'를 개최하고 '전라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을 삶의 중심 가치로 삼는 선진 안전교육·문화 생활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4대 핵심전략과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이번에 수립한 안전문화 진흥계획 관련 4대 핵심전략은 세부적으로 ▲생활 속 안전교육 확산 ▲도민 안전의식 제고 ▲자율적 민·관 협업체계 정착 ▲안전문화 추진기반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재난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도입 등 분야별 안전교육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안전문화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통해 안전사고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문협의 핵심역할을 민간주도 방식의 안전문화운동으로 전환하고 민·관 공동 협력과제 및 실천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문화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역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119 이동 안전체험버스' 사업을 실시하는 등 안전체험 생활화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송하진 지사는 "생활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문화 운동에 안문협 위원님들께서 합심하여 적극 참여해 주신다면 안전문화 수준은 한단계 더 성숙해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는 중앙과 도·시군, 민간단체와의 상생·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데 이어 "무실역행(務實力行)의 자세로 체감하고 실천하는 안전이 되도록 안전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영수 기자

전주시, 20개 초등학교 텃밭 조성

9600만원 들여 내달 초 만들어 체험 학습장 운영

전주시가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과 농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개 초등학교 학교 텃밭을 만든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24일 학교 텃밭 담당교사와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텃밭 조성 설명회를 가졌다.

학교 텃밭 조성은 총사업비 9600만원을 들여 각 학교별 텃밭조성과 벼 체험상자를 만들어 학생들이 직접 농작물을 심고, 가꾸는 체험 학습장으로 운영한다. 또, 식재작물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은 학교별 여건에 맞게 추진할 계획이다.

텃밭은 내달 초 조성해서 11월까지 운영되며, 모종심기, 모내기, 작물수확, 텃밭 수확물을 이용한 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학교텃밭 가꾸기 활동은 아이들에게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사의 중요성과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체험활동이 될 것"이라며 "학교 텃밭이 학생들의 협동능력 향상을 위한 토론과 실습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